

4월 2일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기념 전시 및 사인회

- 발달장애 작가 초청, '사(4)랑과 이(2)해' 전시 개최 -
-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협업으로 지역사회 유대 강화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남운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직무대리)는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4월 2일)을 맞아 4월 2일(목)부터 6월 30일(화)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M(서울시 광진구 소재)에서 '사(4)랑과 이(2)해' 특별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4월 2일'이라는 날짜가 품은 의미에서 출발했다. 사랑(4)과 이해(2)로 '우리 사이(42)'를 잇는다는 기획 의도 아래,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에서 활발히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김승현·심규철 작가를 초청하여 연결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눈다.

김승현 작가는 '바다'를 주요 소재로, 현실과 이상 세계가 공존하는 풍경을 캔버스에 담아온 작가다. 낮설고 닿을 수 없기에 오히려 동경을 불러일으키는 바다를 자신만의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시각화하여 <우리의 유토피아를 찾아서>, <잃어버린 해저도시를 찾아서> 등 4점을 출품한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5·16기 입주작가로 활동 중이며, 예술의전당, 세종미술관 등 국내 주요 기관에서 다수의 전시에 참여해왔다.

심규철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스케치북을 손에 놓지 않았던 작가로, 지금은 분할 화면 방식으로 애니메이션·게임·역사 속 장면들을 한 화면에 모아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고구려 고분벽화를 모티브로 한 <고구려의 행군>, <파리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등 4점을 출품한다. 아르브뤼미술상 수상자 전시, 한-미국·한-네덜란

드 국제교류전 등 국내외 전시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발달장애 예술가 육성사업 <우리시각>에 2024년부터 참여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남운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직무대리는 "이번 전시는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시선으로 포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이다"라며 "예술이 정신건강과 지역사회를 잇는 언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www.ncm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1. ‘사(4)랑과 이(2)해’ 전시 개요
2. 전시 포스터

담당 부서	국립정신건강센터 기획조정과	책임자	과 장	홍찬자 (02-2204-0104)
		담당자	주무관	김혜란 (02-2204-0017)



□ **전시개요**

- (목적)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4월 2일) 기념 전시회 개최를 통한 정신장애 예술인 작품 소개 및 정신건강인식개선 도모
- (초청작가) 김승현·심규철 작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입주작가
- (전시작품) 그림 작품 8점
- (전시기간) '26년 4월 2일(목) ~ '26년 6월 30일(화)
- (장소)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 M

□ **전시회 오픈 행사**

- (주제)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기념, ‘사(4)랑과 이(2)해’
- (일시) 2026년 4월 2일(목) 10:00~10:40
- (장소)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 M
- (참석자) 작가 및 관계자, 센터 이용객, 광진구 인근 주민 등
- (순서 및 주요내용)

시간	내용	비고
10:00 ~ 10:10	· 인사말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직무대리) 김지유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장애예술지원팀 팀장)
10:10 ~ 10:25	· 작가 및 작품 소개	
10:25 ~ 10:30	· 기념촬영	
10:30 ~ 10:50	· 작품 감상 및 작가 사인회	

